



2003년에 개최된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 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회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미국의 램스 암스트롱이 선두였고 스페인의 ‘마요’와 독일의 ‘율리히’ 선수가 그 뒤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을 9.5km 남겨 놓고 한 관중의 가방 끈에 암스트롱의 자전거 핸들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를 따르던 스페인 선수 ‘마요’도 넘어졌고 그 뒤를 따르던 독일 선수 ‘율리히’는 급히 핸들을 돌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암스트롱에 밀려 만년 2인자로 머물고 있던 ‘율리히’에게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율리히’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를 계속 보면서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선수들이 앞서나가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율리히는 암스트롱과 스페인선수가 일어나 다시 페달을 밟아 속도를 내어 자기를 지나치자 자신도 속도를 내기 시작 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암스트롱이 율리히를 40초의 차이로 앞서서 골인지점을 통과하여 우승 했습니다.

경기 직후 독일 언론들은 율리히가 우승의 기회를 날려 버렸으며 앞 다투어 비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행운이 아닌 정정당당하고 진정한 우승

을 원합니다. 오늘 암스트롱에게 비록 행운은 없었지만 행운보다 더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우승은 암스트롱의 몫이지만 아름다운 찬사는 ‘율리히’의 몫이었습니다.



◀그때 그랬지 ▶ 가수 양희은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입술..” 참 풋풋했던 청바지의 그녀에게서 나오던 노래는 시대의 암울함속에 갇혀있던 젊은이들에게는 시원한 정량제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찰랑찰랑했던 생머리카락은 풀어지기 힘든 퍼머로 바뀌었고 모습도 벽낙한 이웃집 아주머니의 자태로 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싱그러웠던 모습에서 한발자국씩 비켜 가는것, 그래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가 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9권 3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8월 26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천국가면 불평이 사라질까?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게으름 뿐만 아니라 늘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살이가 어떠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부지런한 사람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불평, 불만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서 자신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거처할 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곳이라며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써부터 소매를 걷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내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슨 하늘나라가 이러냐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계속 투덜댔지만 소용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집은 이내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차고 벌레들이 기어다녔으며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갔습니다. 그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차라리 세상이 더 좋았다며 한탄만 거듭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불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들었습니다. 천국은 무위도식하는 곳이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으셨습니다.

“천국을 오해하지 말아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심는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땅의 논리가 아니고 애초 천국의 논리였다. 천국의 논리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 주어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자이기에 결코 천국의 땅 한 평이라도 내줄 수 없다. 네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말씀따라 행하기▶

두 번 입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입을 가치도 없다.
성경은 여러번 읽을수록
깊은 은혜로 잠기게 되는 책

◀인품따라 행하기▶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사소한 것을 빼앗기면
받았던 모든 것을 잊어 버린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16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2(시편 143)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395장	다 같이
기 도 Pray		양경배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6:25-32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소유나 삶이나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76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pm

1. 교우소식
<모친 위증으로 한국방문> 조현구 집사
<주소변경> 사카시다, 최귀향 집사 ☎278-8339. 77A Wintere Rd. Papatoetoe
<한국에서 귀국> 김경수 성도(조은희 집사).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Mobile> 김성국 목사 021-0707-383.
2. "Evening Alpha" <일시> 8월28일(화)부터 매주 저녁 7:30분. 교회사무실
*<대상> 향존직 Alpha, Morning Alpha 미참자 & 신입 Alpha 교우
*<문의> 박병민 집사
3. "갈보리동호회" 등산(Tramping) <일시> 9월1일(토) 오전 10:30 Park 주차장
<장소> Wenderholm Regional Park <문의> 백제성 집사 *점심 각자 지참
*겨울 끝자락인듯, 봄의 처녀인듯 9월 1일 토요일,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끼고 함께 산을 걸으면서 낭만과 건강을 즐겨봅시다.
4. 정기당회 <일시> 9월 5일(수) 저녁 6시 Dress Room
5. 금주수요예배 설교: 미주한인장로회 총회장 황천영 목사(LA 다운니제일장로교회)
*뉴질랜드 노회 독려를 위한 방문중에 우리교회 수요예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6. 미주한인장로회 뉴질랜드 노회 목사 세미나(강사: 총회장 황천영 목사)
<일시> 29일(목)-30일(금). 1박2일 <장소> 로토루아
7.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8. 학생부 수련회(예고) <일시> 9월 21(금)-23(주일).
*청소년 시절에 내 믿음을 유지시켜준 것의 절반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서로 나눈 우정들이었습니다. 2박3일간의 일정,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남을 신앙의 힘과 추억입니다.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128 총액: \$ 380,609.70

◆9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주 차	안 내
2	노은숙		<현관> 김순자 노은숙
9	이광희		<성전입구> 임혜자
16	이규임	*최현철서재오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23	이금선	향존직	
30	이재영		

◆9월의 교회력◆

주 일	모임 행사
2	정기구역예배(7)
9	성가대헌신예배(12)
16	
23	
30	이사줍기주일 선교회월례회

◀착한 시인들▶ 식 구 유병록

매일 함께 하는 식구들 얼굴에서
삼시 세끼 대하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때마다 비슷한 변변찮은 반찬에서
새로이 찾아내는 맛이 있다.

간장에 절인 깻잎, 젓가락으로 집는데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다시금 놓자니 눈치가 보이고
한 번에 먹자 하니 입 속이 먼저 짜고
나머지 한 장을 때 내어 주려고
젓가락 몇 쌍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이런 게 식구이겠거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 식구들의 얼굴이겠거니.

아내가 좀 험거워진 바지를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깔끔했던
남편이 이제는 빠져 나온 코
털에 무더진 신경이면 좀 어떻
습니까!

서로 신비로움은 사라진지 오래,
이제는 혈육의 여유로 살아
가는 가족들이기에 차칫 무심하
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힘들다고 말도 못
하며 가슴 태울 때 비로서 든든
한 바위 같은 위로로 힘이 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깻잎 한 장을 때는데도 무언의
마음이 맞는 마음, 가족의 마음
입니다.